

#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 - 내몽고 명수묘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

김 문 속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I. 서론

요선오자란 의(衣)와 상(裳)으로 구성되어 있고 허리에 여러 줄의 요선(腰線)이 장식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포(袍)를 지칭한다. 이러한 특징적인 형태를 지닌 요선오자는 원대(元代) 문헌부터 그 명칭이 등장하고 각종 회화자료에서도 몽골인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복식유물도 이 시기부터 출토되어 중세 몽골인에 의해 착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의 몽골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몽골에 의해 세계 대제국이 건설된 시기로서, 당시 몽골은 중국과 고려를 포함한 동아시아 일대와 남으로는 베트남, 북으로는 러시아 일대 그리고 서쪽으로는 페르시아에서 시리아에 이르는 거대제국을 형성한다. 또한 몽골에 의한 평화시기(Pax Mongolica) 동안에 몽골은 동서(東西) 장인을 이주시키고 상인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동서 문물의 교류를 주도하였는데, 중세 몽골의 이러한 범세계적 문화의 교류는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몽골의 요선오자는 중세 고려에도 도입되어 착용되었으며, 이는 해인사의 불복장유물로 확인되고 조선 전기에도 다수의 유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몽골 요선오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 요선오자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중세 몽골인에 의해 널리 착용된 요선오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는 고려시대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요선오자의 전개과정과 그 특성을 고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려면 먼저 요선오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선오자가 즐겨 착용되었던 중세 몽골의 시대적 배경이라던가, 중세 몽골인이 요선오

자 이외에 착용한 다른 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요선오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착용했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세 몽골 관련 고문헌과 선행 연구, 그리고 포를 착용하고 있는 인물 그림이나 도용 등을 포함한 각종 시각 자료를 고찰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인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실제 출토 복식을 실측·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까지 출토된 요선오자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각 유물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요선오자 출토유물에 대한 고찰은 현재까지 보고된 발굴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비교·고찰할 것이다. 또한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은 내몽고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를 대상으로 구성방법이나 재단방법, 봉제방법의 특이성 등에 대해 실측 및 조사연구할 것이다. 물론 복식유물에 대한 실측·조사연구가 내몽고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그 연구결과를 몽골 요선오자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수성의 보편화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요선오자의 출토유물들 각각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고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편화의 한계에 대해 명시할 것이다.

### Ⅲ. 결과 및 결론

몽골의 요선오자는 중세 몽골인의 제반 생활 여건에서 고안된 복식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몽골인은 초원을 따라 말을 타고 이동하며 생활하던 유목민으로서 기마생활에 익숙하였으며 중세에는 칭기스칸이라는 지도자 하에서 발흥하여 전쟁을 통하여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계를 몽골이라는 이름으로 재편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갖는 중세 몽골인은 전쟁이나 사냥과 같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합한 복식을 선호하였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전쟁을 통하여 쌓은 부(富)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복식에 대한 기호가 반영된 것이 요선오자라고 할 수 있다.

중세 몽골인은 요선오자 이외에도 길이가 길고 깊게 여머지는 델(Del)이라는 직령포(直領袍)가 남녀 모두에게 착용되었다. 그러나 요선오자는 신분이 높은 남자나 화려한 복식이 요구되는 의위의 복식으로 착용된 남성 전용의 복식으로서 전통적으로 착용되어 온 몽골의 델에 비해 보다 과시적인 기호가 반영된 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회화나 도용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요선오자를 착용한 몽골 남성의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좁거나 넓

은 챙이 달린 립형(笠形) 쓰개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 요선오자가 몽골 남성들 사이에 즐겨 착용된 복식임을 알 수 있다.

몽골 요선오자의 출토유물은 현재까지 4점이 알려져 있다. 모두 중세 몽골 시기에 중국이나 몽고영토에서 발굴된 것으로 이들 유물의 공통점은 모두 신분이 높은 남성이 착용하였다는 점과 실을 꼬아 만든 다수의 변선을 허리 부분에 부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금사(金絲)나 은사(銀絲) 등을 삽입하여 직조한 값비싼 직금금(織金錦)이 재질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출토유물들 간에는 것의 모양이라던가, 소매의 탈착여부, 한 가지 이상의 직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차이점도 발견되고 있다.

몽골 요선오자의 출토유물 중 내몽고 명수묘에서 발굴된 요선오자에 대한 실측조사를 통하여 기능적 구조, 과시적 구조, 그리고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구조의 세 가지로 대별되는 구조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몽골 요선오자의 기능적 구조는 기마와 사냥, 전쟁 등의 중세 몽골인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요선오자의 기능적 구조에 해당되는 특징은 먼저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 구조이다. 상의하상식 구조는 활동할 때 몸의 움직임에 제한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부여해준다. 두 번째의 기능적 특징은 옆트임이다. 요선오자는 상의하상식 구조이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에 요구되는 여유는 충분하지만 기마할 때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옆에 트임을 주고 있다. 즉 명수묘 출토 요선오자의 경우, 왼쪽 앞길의 옆에 아래너비가 51cm이고 위너비는 20cm나 되는 한 자락의 천을 덧붙여 뒤를 넘기고 그 위로 뒷길이 오도록하여 마치 우리나라 도포의 전삼과 같은 효과를 주면서 옆쪽으로 트임이 생겨 말을 탈 때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세 번째의 기능적 특징은 다아트이다. 왼쪽 앞길을 구성할 때 치마폭은 넓고 저고리는 좁아야하므로 저고리 부분에서 불필요한 분량 만큼 없애기 위해 마치 한 개의 프린세스 다아트처럼 처리해주고 있다. 이 다아트가 중세 몽골인이 고안한 것인지 아니면 동서 장인의 교류를 통한 서역 구성방법의 수용인지는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몽골 요선오자의 과시적 구조는 당시 전쟁을 통하여 축적된 부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만든 다수의 변선을 허리부위에 붙여 준 것이다. 이는 허리부분이 몸에 맞도록 하고자한 애초의 기능적 목적보다는 전문적인 장인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과시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과시적 구조로 들 수 있는 것은 극도의 긴 화장이다.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의 경우 화장이 무려 118.5cm로 웬만한 포의 길이보다도 길다. 이는 요선오자가 기마생활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된 복식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의 화장으로서 착용자의 위엄있는 신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과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과시적

특징은 값비싼 직물의 사용이다. 출토된 요선오자는 모두 금사가 직물 전면에 삽입된 직금금이 라는 당시로서는 최고급직물이 사용되어 있다. 이 역시 착용자가 그와같은 호화로운 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계층임을 보여주는 과시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구조는 불필요하게 여러 조각으로 재단된 재단상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불교의 가사(袈裟)나 납의(衲衣)와 같은 개념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되며 당시 몽고인들의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대별되는 몽골 요선오자의 구조적 특징은 명수묘에서 출토된 요선오자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므로 몽골 요선오자 전체에 대한 보편화 작업을 위해서는 다른 유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요구된다.